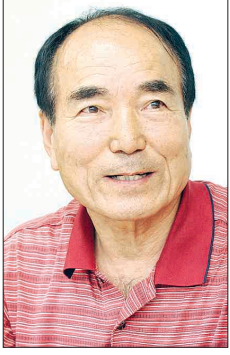


독학 30년 광주 사진작가 하영철씨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 됐다

독학으로 30여년 동안 사진작업에 매달려온 60대가 대한민국 사진대전 추천작가로 선정됐다.



하영철(67·전 광주시화학교교육원장)씨가 최근 제26회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세상은 요지경'이 특선작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씨는 지난 2006년 대한민국 사진대전까지 3회 특선한 뒤 이번까지 4차례 특선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선정요건을 갖췄다. 현재 광주에 있는 사진대전 추천작가는 하씨와 신명환씨 등 2명 뿐이다.

광주시 사진대전 추천작가이기도 한 그는 마흔살 되던해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잡았다.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지만 그는 대한항공사진전 대상, 장수광량 사진 공모전 대상, 일본 IPA 국제사진 공모전 금상 등 국내외 사진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씨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는 데 전념해왔지만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진솔한 인간들의 표정과 삶을 작품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청동기 시대 고구래 출토

남구 행암동-삼국시대 가마터 6기도

전남문화재 연구원은 20일 광주시 남구 행암동 주택건설부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 시대 고구래와 삼국시대 가마터 6기 등 유물과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구래(목기)는 발을 고르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고구래는 청동기 구상유구(溝狀遺構)의 뿔층에서 부분토기 등과 함께 출토됐다.

모두 6기가 확인된 삼국시대 토기가 지하식으로 굴뚝과 천정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삼국시대 토기가마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가마에서는 토제 방울, 도자미(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받침대) 등이 발굴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현창 감독이 말하는 뮤지컬 '넌센스' 감상법

"내가 주인공" 마음 열고 즐겨라

지난 1991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단 고진 원작의 '넌센스' 시리즈는 지금까지 290만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한 히트 작품이다. '넌센스'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인 '넌센스 크래커'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30일(오후 4시·7시30분), 7월1일(오후3시·6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넌센스 크래커'의 제작사인 뮤지컬컴퍼니 컬처피어 노현창 제작감독에게 '넌센스 크래커'를 재미있게 감상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6월30일·7월1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코믹 코드가 초점을 맞춰라

1편 '넌센스'를 시작으로 '넌센스 썸보리', '넌센스 A-Men' 등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내며 인기몰이를 해 온 '넌센스' 시리즈는 코믹 코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지난해부터 브로드웨이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시리즈 4탄 '넌센스 크래커' 역시 유쾌한 웃음에 무게 중심을 둔 작품이다. 즐거이나 극적 구성 등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순간 순간 빛을 발하는 코믹적 요소에 마음을 열면 훨씬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대본 역시 코믹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가미해 유쾌함을 더해준다.

개그맨 출신 배우들의 장점을 보라

초연 때와 달리 개그맨 심현섭과 김숙을 캐스팅했다. 초연 때는 원로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무게감이 있었지만 극의 핵심인 코믹 요소가 부족해 조금 지루하다는 평가가 있어 과감히 두 배우를 출연시켰다.

유일한 남자 출연자인 비질 신부 역의 심현섭은 다양한 개진기와 애드립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개그맨 김숙의 경우 정통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래 부문을 걱정하는 관객들이 있기도 했지만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 물론 폴 수녀역의 나정운, 허버트 수녀역의 홍지민, 레오 수

즐거려 케이블 TV에서

의외로 들어온 '호두'까지 인형과 생쥐대왕'을 제작하기 위해 엔젤 수녀원의 수녀들이 출몰한다. 남자가 필요해 레오 수녀의 오빠인 비질 신부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작품 제작이 쉽지않은 않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아둔 선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다. 폴 수녀는 자신이 복권 한장을 받고 가난한 폴을 가족에게 선물을 몽땅 줬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면서 수녀들은 복권을 어디에 쓸지 고민한다.

녀역의 김두명 등 정통 뮤지컬 배우들과 가수 출신 조갑경의 노래 실력은 관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

배우들과 함께 즐겨라

'넌센스 크래커'는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이 모두 객석에서 이뤄진다. 무대에서만 공연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함께 노래하며 관객과 어우러지며 경매도 진행한다.

관객과 함께 진행되는 객석 이벤트에서는 선물을 증정하는 코너도 있으니 놓치지 말 것. 공연 당일의 객석 반응에 따라 배우들의 연기 역시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훨씬 역동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5호주 라이브 반주 역시 현장감을 살려 흥을 돋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티켓 가격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문의 062-220-054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손봉채 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설치작가 손봉채씨 상하이 전시회

광주미술 중국에 알린다

설치작가 손봉채씨가 상하이 한국문화원 개관 기념전에 초청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시회를 갖는다.

손씨는 한국문화원의 전시역할을 하게 될 상하이 한국문화원 개관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 국내 작가로는 유일하게 참가, 광주미술을 중국에 선보인다.

손씨는 지난 2006년 상하이 듀얼론 미술관 개관전을 눈여겨 본 하현봉 한국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전시를 갖게됐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지리산', '바람의 전설' 등 입체 풍경 설치작품과 기존의 움직임이 작품 등을 함께 선보인다.

'지리산' 등은 한국전통의 상채나, 5·18 광주항쟁의 역사의 역사적 현장을 담은 것으로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담겨있는 이면의 진실과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입체 풍경 연작은 한국의 전통적 정조를 바탕으로 현대 설치미술이라는 첨단 기법을 결합, 정신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동서양의 접점을 시도하고 있다.

'자전거 작가'로 통하는 그가 새로 선보이는 풍경 설치작품은 역사적 사건 사고 등의 영상을 여러 장의 투명 아크릴 위에 인쇄, 이를 층층이 포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조선대 미대를 거쳐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제1회 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뒤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스페인 아르고 아트페어에 출품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 콘서트 내일 광주 남구 문예회관

영산강 살리기 기념 마련 품&희망 콘서트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린다.

품과 희망 포럼(대표 김혜경 조선대 교수·사진)과 주암호보전협의회가 준비한 이번 음악회에는 김 대표를 비롯, 김영실·오승석·이계하·최창·이영경·박미애씨 등이 출연. 오펜바하의 '자클린의 눈물', '오솔레미오', '그리운 금강산' '겨울은 들뜬 푸르른 숲이처럼' '친구여' '희망의 나라로' 등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jang' (짱) online academy, featuring a large '1' graphic and text about qualifications and cour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g.jjang.co.kr' featuring 'Jjang' bran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Jido) and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with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성공인중개사' (Hyoseong Gongin) and '대지부동산' (Daegi Budeongsan) with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Homecon Real Estate Research)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